

第五回 韓国研修旅行の感想

2013年3月6-11日実施

酪農学部農業経済学科 4年 長谷川彰己

今回は、韓国が初めての海外旅行地となりました。とても緊張しましたが、最高の旅行にする事が出来ました。この旅行に参加した目的は、日本と韓国の過去に起きた歴史問題などを勉強する事、様々な年代の方と交流し、韓国に住む友達を沢山作る事、韓国の食文化を知る事などです。男性3名・女性4名という今回の参加メンバーで、女性とも仲良くなれたら嬉しいと思っていました。ですので、積極的に話して交流して、友達になる事が出来たので嬉しかったです。

ナムの家で考えたこと

印象に残ったのは、ナムの家に行った時の事です。慰安婦歴史博物館では、様々な貴重な資料があり、説明をしてくださった方が日本人でした。その内容は衝撃的で、どのように受け止めれば良いか戸惑いました。そして、決定的な証拠がないとして日本政府がこの問題を無視していることを知りました。日本の政治家達は、過去のことは事実が分からないし証拠がないから、無視する姿勢を貫いていますが、私は許せないと考えています。歴史問題など、「上り坂と下り坂のどちらが多い？」の質問に似ていると思います。個人的には同じだと思います。見方によって、上り坂にも見えるし、下り坂にも見えます。だから、片方の意見しか受け入れない事はダメですが、過去を見ないで頭ごなしに否定する事はいけないと考えます。しっかりと意見を聞き、日本が隠している証拠を明らかにし、それで日本の主張が正しいという主張をして、双方が考えれば良いだけであると思います。

過去を直視しないで友好関係を築こう！という考え方・行動には納得出来ません。事実関係はどうであれ、そのような日本政府の不誠実な対応に対して、苛立ち・不信感を抱きました。それと、日本も自国の歴史問題・過去を知る為の義務と権利があるが、その機会が少ない事は勿体無いと感じました。日本人も、過去の歴史に関心を持つ意識が必要だと感じました。

スンシル大学訪問

ソウル市内にあるスンシル大学の学生とも交流しました。キャンパスを案内をしてくれた韓国人大学生は、とても日本語が達者で、私と山本くん以外の学生は韓国語を殆ど話せない状態ですが、不都合はありませんでした。日本に対して関心を抱いてくれている事を感謝しています。大学では、一緒に食事を共にする機会が与えられ、その時に日本語を話せない韓国人大学生2名と、韓国語で会話が出来ましたし、facebook やカカオトークで今後も継続して交流出来る事になり、幸せです。

韓国語で話せた喜び

総括として、韓国研修旅行に参加して、韓国語を独学で2年間程度勉強して、本当に良かったと思っています。参加者が言いたい事を通訳して伝えたり、韓国に興味がある日本人として、韓国語を話し、相手に理解して貰えた事が本当に嬉しかったです。初めて逢った人でも韓国語・英語で会話出来たので、韓国の方と交流する事・韓国旅行に自信が付きました。様々な事を経験させて頂いた酪農学園大学に、感謝しています。多くの人に支えられ、国内・海外に信頼出来る友達が沢山

いる事に、感謝します。

試練を乗り越えて

生きている間、もう越えられないと思う壁が人生では沢山訪れると思いますし、私にも訪れました。生まれてくる時に死にそうになりましたし、身体の病気を始め、自殺まで考えたことがありました。しかし、その人が越えられる位の困難が与えられると信じています！諦めないで、コツコツ努力する事が大事だと思います。止まない雨はなく、他人と比べる必要もないと思います。自分は自分の人生を歩み、自分の存在を認める事は物凄く大切だと考えます。人生は与えられるものではなく、自分で切り開いていくものです。過去の歴史を把握し、それを教訓に現在・未来を生きるのが大切で、友好関係を築きながら、後悔がないように“今”を大切に生き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私達は過去に生きているのではない。“今”という戻らない貴重な時間に生きているのです……。

한국 연수 여행의 감상

이번은, 한국이 처음의 해외여행 땅이 되었습니다. 매우 긴장했습니다만, 최고 여행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행에 참가한 목적은, 한국의 식문화를 아는 것·일본과 한국의 과거에 일어난 역사문제등을 공부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여러가지 년대쪽과 교류하고, 한국에 사는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것등입니다.

남성 3 명·여성 4 명이라고 하는 이번의 참가 멤버로, 여성과도 사이좋게 될 수 있으면 기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입니다 것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교류하고, 친구가 될 수 있었으므로 기뻐합니다.

역사박물관에서는, 각양각색인 귀중한 자료가 있어, 설명을 해 주신 분이 일본인이었습니다. 거기의 내용은, 과격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일본정부는, 상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과거에 일어나고, 사실을 모르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자세를 관철하고 있지만, 나는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문제등은, 「오르막 (상승) 과 내리막길의 어느쪽이 많니? 」 의 질문을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기에 달려 있고, 오르막 (상승) 에도 보이고, 내리막길에도 보입니다. 그러므로, 한 쪽의 의견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만, 과거를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의견을 듣고, 일본이 감추고 있는 증거를 밝히고, 그래서 일본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쌍방이 생각하면 좋은 것 만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직시하지 않고 우호관계를 쌓자! 이라고 하는 사고방식·행동에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실 관계는 어때라, 그러한 일본정부가 불성실한 대응에 대하여, 신경질을 내·불신감을 품었습니다.

그것과, 일본도 자국의 역사문제·과거를 알기 위한 의무와 권리가 있지만, 그 기회가 적은 것은 아깝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인도, 과거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대학의 학생과도 교류했습니다. 거기에서 안내를 해준 한국인대학생은, 매우 일본어가

능숙해서, 나와 야마모토(山本)이외의 학생은 한국어를 대부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만,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일본에 대하여 관심을 품어 주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식사를 모두 하는 기회가 주어져, 그 때에 일본어를 이야기할 수 없는 한국인대학생 2 명과, 한국어로 회화를 할 수 있고, facebook 나 카카오 토크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류할 수 있게 되고, 행복합니다.

총괄로서, 한국 연수 여행에 참가하고, 한국어를 독학으로 2 년간정도 공부하고, 정말로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통역해서 전하거나, 한국어를 이야기해서 한국에 흥미가 있는 일본인으로서, 상대방에게 이해해 주신 것이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라도 한국어·영어로 회화할 수 있었으므로, 한국쪽과 교류하는 것·한국 여행에 자신이 붙었습니다.

여러가지 것을 경험시켜 주신 낙농학원대학(酪農學園大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유지할 수 있고, 국내·해외에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많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살아 있는 사이, 이미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벽이 인생에서는 많이 방문한다고 생각하고, 나에게도 방문했습니다. 생겨나게 될 때에 죽을것 같아지고, 신체의 병을 시작하고,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넘을 수 있는 정도의 곤란이 주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치지 않은 비는 없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걷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대단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절개해 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파악하고, 그것을 교훈에 현재·미래를 사는 것이 중요해서, 우호관계를 쌓으면서, 후회가 없는 것 같이 “지금” 을 중요하게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고 말하는 돌아가지 않는 귀중한 시간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낙농학원대학(酪農學園大學)
낙농학부
농업경제학과 4년
하세가와 쇼고